2015 광주시정 결산 <하>

돋보인 현장 소통…청년·마을 공동체 살아나다

2015년 광주시정의 키워드는 따뜻함, 배려, 소통, 참여, 현장이었다. 행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직자들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행정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협업과 토론'은 이런 변화의 동력이었다. 노사문화에서도 분규의 적극중재,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선도적인 행정을 선보였다. 또 윤장현 시장의 방침에 따라 시민들의 삶터에서 문제를 찾고 해답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이 돋보였다.

2015년은 광주에서 역동적인 청년문화가 뿌리내리는 원년이었다. 사진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념해 열린 세계 청년축제. 〈광주일보 자료사진〉

5 상생·연대 프로젝트

올 한해 광주시정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왕성한 지자체간 상생협력 프로젝트다. 광주와 전남이란 협력의 범위도, 인접 자치단체, 전북, 서울, 대구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넓혔다.

광주·전남 상생협력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탐색과 시행의 단계를 벗어나 완숙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 시도는 그동안 18개 상생협력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해 왔다. 지난 7월 열린 광주하계U대회는 경기시설 개·보수와 행사지원, 공무원 파견 등에서 전남도가 적극 협력해 성공개최에 힘을 보탰고, 광주시는 전남에서 개최한 국제농업박람회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 문화공연, 홍보 등을 지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송정역~양림동 역사탐방~죽녹원 등에 이르는 당일 및 1박2일 코스의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해 '아트투어 남행열차'를 5월부터 운행했다.

제2남도학숙 건립도 상생협력의 대표적 성과다. 지난 8월 시·도 공동으로 서울 은평구 공유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며 600명 수용 규모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은 4월 시·도의회에서 통합조례안이 의결돼 6월 창립총회를 가졌다.

6 되살아난 마을공동체

올해 광주에선 자발적인 마을주민 모임과 활동이 크게 늘었다. 광주시의 민선 6기 시민중심 행정의 대표정책 중 하나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주민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골목과 골목,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흐르고, 마을 일을 주민이 스스로 처리하며, 더불어 자립적 경제구조를 갖추고 마을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향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공동체로의 변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 또한 과거 마을환경개선 중심의 단순 형태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관계망 형성, 돌봄, 문화, 복지나눔, 마을경제, 마을비전계획 수립 등으로 마을사업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민선6기 광주시의 마을정책과 맞닿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도 주목할 만하다. 민민 네트워크로 마을사람과 마을 활동가들이 만나고 배우는 마을학교가 3월부터 운영됐다.

마을활동을 시작하는 씨앗기는 '마을모임 형성지원사업'에서, 경험이 있는 공동체는 자치구 자유공모사업에서, 마을특성에 따라 인권마을, 복지마을, 여성친화마을, 모델발굴사업 등에서 지원을 받았다.

7 청년들, 정책 참여

'청년의 미래가 지역의 미래다'라는 기조 아래 민선 6기 들어 전국 최초로 청년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한 시는 청년의 참여기반 조성으로 첫 걸음을 뗐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과 사업은 실제로 광주시정에 반영돼 2016년부터 추진하게 된다.

청년위원회가 제안한 '빛가람 취업 멘토링' '청년상인 육성' '청년 학교' 등 3건과 꿈꾸는 테이블에서 제안된 '청년 할당제' '청년 인턴' 등 15건이 그 대상이다.

올해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문을 열었다. 상업공간 외에 청년 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공실로 비어있던 금남 지하상가를 활용한 '광주청년센터 더숲'을 개관해 청년이 지역사회와 더욱 밀착하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청년 활동가를 육성해 양적인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정책의 추진 기반이 되는 '광주 청년정책 기본조례'가 제정돼 청년의 참여, 일·문화·주거 등 정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15년 한해 동안 청년과 함께 소통하면서 도출한 청년경제, 청년복지, 청년문화, 청년정치의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사업이 세부적으로 추진된다.

8 소통·실용의 리더십

윤장현 광주시장의 리더십은 철저히 탈권위·소통·실용의 리더십이다. 윤 시장은 직원·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으로 시민시장으로서의 초심을 지켜가고 있다. 지난해 취임과 함께 시작된 윤 시장의 특권 내려놓기는 올해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나를 따르라' 식이 아닌 '시민이 바라는 바를 따르자'는 것이다. '시민참여예산제'도 시의 살림을 시민들의 뜻에 따라 꾸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 시장은 그 어떤 가치도 '시민행복'과 '광주발전'에 우선할 수 없다는 소신 행정을 폈다. 이는 2016년 국비확보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소속 정당인 야당은 기본이고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소통에 특히 공을 들였다.

정치권뿐만 아니다. 정부 부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부처 장·차관뿐만 아니고 예산의 기초를 짜는 실무직원들까지 직접 찾아가 손을 잡았다.

그렇게 지난해에 비해 748억원, 자연감소분까지 감안하면 1322억원이 늘어난 1조7332억원의 내년 국비를 확보했다.

취임 초 낯설었던 '윤장현 리더십'은 이제 정책과 현장에 자연스럽게 접목되면서 미래 광주의 기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마을 사랑방 '도란도란 북카페'로 오세요

비아동 주민들, 2년간 한옥 개조…협동조합 운영도

건축된지 80년이 지난 낡은 한옥 건물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북카페'로 변신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비아동 자치위원회가 그동안 예비군 중대본부와 동주민센터 창고로 사용해 왔던 낡은 한옥 건물을 주민을 위한 '도란도란 북카페'로 화려하게 변신시켰다. 〈사진〉

'도란도란 북카페'는 앞으로 '까망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기업으로 탈바꿈해, 주민들이 직접 바리스타가 되어 커피를 판매하는 등 주민들의 사랑방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옥 건물이 당초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은 지난 1935년으로, 문화재급 75㎡ 규모의 한옥이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같이 낡은 한옥 건물이 화려한 변신을 꾀하기까지는 2년여 동안 주민전용 공간으로 꾸미기 위한 비아동 자치위원회 주민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광주시가 지난 2014년 공모한 창조마을만들기 사업과 2015년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아 낡은 한옥을 주민전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2기 청년위원' 내달 8일까지 모집

광주시가 제2기 청년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시 청년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이며 청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국내외 청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 참석 시 소정의 참석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시민이며, 모집 인원은 50명 이내이다.

신청 접수는 내년 1월8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 공고를 참조해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이메일(전자우편 dlskjulia@korea.kr)으로 제출하거나 시 청년인재육성과(시청 2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중 자격 기준에 적합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 직업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하며,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8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펜션·문화복합시설 최적!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펜션,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

2016년도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시작 하십시요!

대표 : 최선규
H.010-3605-5000